

비영리조직과 청소년복지 : 사례연구

황 창 순*

- I. 머리말
- II. 관점과 이론
- III. 서울근로청소년회관 소개
- IV. 근로청소년과 복지
- V. 논의 및 결론

I. 머리말

연령에 기반을 둔 사회적 존재로서 그리고 공통의 특징을 가진 사회집단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복지도 청소년에 대한 여러 분야별 논의와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실체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¹⁾ 사회환경의 개선이나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을 주된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 일반의 개념정의가 어려운 만큼이나 정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정의 가운데 로마니신(J. Romanyshyn)은 사회복지란, “사회문제의 조치

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시킨다”(Romanyshyn, 1971, 남세진, 1987, p.839에서 재인용)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의존한다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추상적인 정의보다는 청소년복지가 관심을 갖는 구체적 영역을 살펴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복지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청소년을 위한) “가정보호와 시설보호, 교육기회확대, 근로조건개선, 여가생활지도, 교정교화사업, 그리고 청소년행정”(이용교, 1992 : 88)등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정의와 구체적인 연구 및 정책의 대상 영역이 앞으로 더욱 정교화되고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연구는 청소년복지의 여러 주제 가운데 좁게는 18세만 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떠나야 하는 청소년이나 도시에서 생존을 도모하려는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1) 보기를 들어, 청소년기본계획의 3대 정책과제에 청소년활동과 청소년교류와 더불어 청소년복지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교재에서도 청소년복지론이 포함된 것 등이 청소년복지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비교적 가난한 근로청소년에 대한 관심이고 넓게는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다변화에 대한 관심의 발로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청소년복지의 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복지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복지서비스의 약점과 한계에 대한 대안을 비정부조직 또는 비영리재단에서 찾아 보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청소년복지의 분석을 위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과 논리를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 수집의 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이 연구의 사례로 선택된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역사와 조직, 그리고 주요활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로 질적자료에 근거해서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청소년 복지활동을 탐구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사례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다.

II. 관점과 이론

청소년 분석을 위한 관점 :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분명한 사회집단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나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이 집단이 구체적인 욕구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이 집단과 관련해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가진다는 가정이다(Graycar and Jamrozik, 1989 : 226). 이러한 시각은 사회라는 것이 다른 범주나 기준과 마찬가지로 나이와 관련해서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체제이고 희소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며 국가에 대해 경쟁적인 주장을 펴는 것이라는 다원적 사회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모든 청소년들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그들은 사회구조나 사회계급에서 그들을 하나의 분명한 사회집단으로 만드는 공통의 특징이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사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내부적 다양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 청소년 집단 내부에도 수입, 고용, 그리고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의 차이가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며 심지어는 다른 집단보다 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의 복잡한 속성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나이나 다른 사회적 특징에 의해 정의되며 공통의 이해와 주장을 가진 사회집단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그 타당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청소년 집단 내부의 사회경제적 차이나 계급적 차이가 밝혀질 때는 약화되는 감이 있다. 말하자면 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때 또는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대상청소년들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내부적 다양성에도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또 다른 특징은 청소년의 위치가 상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관심에 대한 이유는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과 시대적 특징에 발맞추어 달랐다. <표 1>은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회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은 20~30년 전에만 해도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놓여 하나의 눈에 띄는 사회집단으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관심이 주로 청소년의 사회적 태도나 행동, 그들의 의상이나 음악적 관심, 그리고 성적인 행동에 모아졌다. 즉, <표 1>의 1, 2항에 바탕을 둔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최근에 와서는 청소년의 실업이나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조건에 대한 적절성과 같은 복지적 측면

(표 1)

청소년에 대한 지각과 사회정책적 반응

지	각	반	응
1. 사회에 대해 공동의 이해와 주장을 펴는 분명한 사회집단으로서의 청소년		1. 청소년에 대한 균일한 서비스의 탐색 :수입분배, 주택, 건강, 교육 등의 서비스	
2. 아동기와 성년기의 전환단계로서의 청소년		2. 주로 치료적 조치들인데 사회통제와 미래의 성인 역할을 보장하는 조치들	
3. 문제집단으로서의 청소년		3. 상담과 같은 개인적이고 비물질적인 서비스로 구성되는 다양한 보조 서비스	
4. 사회의 안정에 위협으로서의 청소년		4. 사회통제조치, 즉 비행선도 및 교정 훈련이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	
5. 불리한 집단으로서의 청소년		5. 경쟁우위를 증대시키기 위한 치료적 조치	
6. 사회변동의 도구로서의 청소년		6. 사회전체란 청소년 자신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관여의 증대	

출처 : Graycar and Jamrozak, 1989 : 229.

에 두어졌다. 이는 다시말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초기의 아동과 성인의 중간적 존재로서의 지각에서 사회의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지각을 거쳐 -즉, 60년대의 반문화적인 일탈이나 비행청소년으로 알려진 일탈에서 -사회적 희생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 -즉,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적인 조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민간복지시설인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사례는 비교우위의 증대를 통해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로 간주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 비영리조직 또는 민간복지조직에 의한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복지학에서 풍부하게 논의되어 왔다. 논의의 핵심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공(公)과 민(民)으로 나누어 보고 이들의 역할

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서양의 경험에서 근거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민간과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분업이 시대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고 요즘에는 70년대에 제기된 복지국가위기론으로²⁾ 인해 국가사회복지의 비대화와 역할의 부적합성이 논의되어 국가와 민간의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에 대한 주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는 사회복지의 평행봉 이론 *parallel bars theory*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취급하는 대상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각기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Helen Clark, 1947 : 김만두, 1987에 재인용). 즉,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민간기관은 자립과 재활이 가능한 빈민을 대상으로, 국가는 자립이 불가능한 빈민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은 개별원

2) 이에 대한 대표적 논의로 Offe, 1985 볼 것.

조직, 인격감화적, 고도의 개별지도 *casework*가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는 빈민의 치료 및 자립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대상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수용, 보호하는 기능과 금전급부만을 행함으로써 국가와 민간이 중복됨이 없이 각기 독립적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론은 사회복지의 사다리 이론 *extension ladder theory*이다. 웹(Webb)부부가 주장한 사다리 이론(Sidney Webb, 1914 : 703-7)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 마치 사다리 모양으로 가장 기초적인 부문에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하에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기초로 점차 상층 부문에는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치시켜가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공공부문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 최저 수준 *minimum level*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복지부문은 이들 중 특별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Kamerman, 1983 : 6).

마지막으로 공공대행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실패와 사회복지비의 증가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 공공대행이론은 상당량의 공공자금이 민간부문에 들어감으로써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 이론에서 공공부문은 주로 정부의 규제를 통해 민간부문을 형성한다. 이 이론 뒤에는 공공부문은 바람직한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서 민간부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 이론은 국가가 바람직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규제를 통해 민간부문 *private sector*을 형성,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대행론으로 개념화되었는데, 이는 국가와 민간기관은 계약상의 조정을 통해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국가는 민간으로부터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Kamerman, 1983).

이상의 논의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와 어떤 재원으로 어떤 종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시설에 대해 국가나 민간의 특성이나 역할배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구분을 우리사회의 복지서비스에 직접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의 이론들이 생성된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이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을 우리상황에 직접 적용시켜 그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이나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준거를 형성하기 보다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간참여의 사례를 이해하는 배경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기초한 사례연구의 축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현실에 맞는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고, 앞에서 소개한 이론적 전통들도 장차 이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³⁾

3) 한편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조직론의 관점에서도 민간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비영리영역 *nonprofit sector*에 대한 연구를 하는 광범위한 문헌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제1영역으로 분류되는 공공조직인 국가영역과 제2영역인 이익을 추구하는 *for-profit* 시장 영역 사이에 놓여 있고 의료, 교육,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등을 이끄는 제3의 영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까지 자세히 이 글에서는 다룰 수 없는데 이 분야를 소개하는 핵심적인 문헌으로는 다음이 있다.(DiMaggio and Anheier, 1990 : Anheier and Seibel, 1990 : Powell, 1987).

자료수집의 방법 :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록분석, 참여관찰, 심층면접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우선, 이 연구의 대상인 한국어린이재단과 서울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기록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자료에는 뉴스레터, 기관의 현장이나 제규정, 연보, 팸플렛, 그리고 안내서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방법은 이 기관의 원생과 직원들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수량화되어 분석되었지만 인과적인 추론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발견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서술식 질문은 이 기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여관찰과 비구조화된 면접이 가장 유용한 자료수집원이 되었다. 5~6회 연구대상기관을 방문해서 관장을 비롯한 직원이나 근로청소년들과 면접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그들의 숙소에서도 몇번의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참여관찰을 사용하는 연구가 흔히 그렇듯이 여러가지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 때문에 연구대상 기관의 특정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부각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III.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소개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이하 “서근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의 모체가 되는 한국어린이재단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서근청”은 한국어린이재단(Korea Children's Fund, 이하 “KCF”)과 역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많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근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KCF”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서근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어린이재단(KCF) : 한국어린이재단은 빈

곤에 직면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1948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최초에는 전적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 기독교 어린이 재단(Christian Children's Fund, 이하 “CCF”)의 한국 지부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이 기관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1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지원하였다. “KCF”로 이름이 바뀐 현재 국내외에 10만명의 후원회가 있으며 15곳에 20여개의 지역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CCF”는 36년간의 일제 통치에서 해방된 3년 후인 1948년 한국에서의 사업을 시작했다. 3개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조용히 사업을 펼치던 “CCF”의 활동은 6.25 동란을 계기로 급격히 증대되기 시작했다. 피난지의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전쟁 고아를 수용한 시설들의 “CCF” 가업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는 굶주리던 아동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CCF”의 복지 프로그램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적절히 변해왔다. 1963년에는 사업 시작 이래 중점을 두어온 시설지원을 빈곤가정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CCF”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시설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한 결과였다. 또한 지원 시설 원장들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구호사업을 일방적인 지원행위가 아닌 상호간의 지원과 협조관계로 승화시켰으며 이들과의 상호작용 시설 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원과 수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1980년 7월부터 서울시의 불우아동 결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전국 14개 주요 도시에 시도 지부를 신설했다. 이 시도 지부를 중심으로 국내 자원을 동원한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국 14개 지부에 16개의 사회복지관을 마련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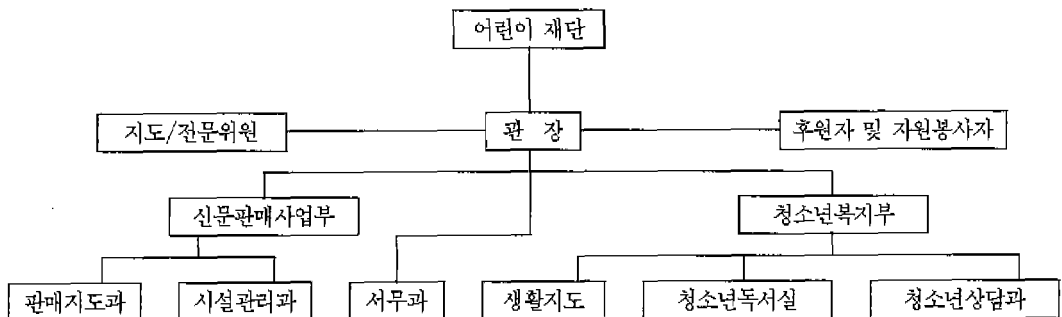
한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불우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위한 청소년 복지관의 운영, 어린이(미아)찾아주기 종합센터 위탁운영, 중증 장애인 요육센터의 건립, 아동복지를 위한 국민홍보등을 시행하고 있다(CCF 38년사, 1987).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은 “KCF”의 청소년 복지사업 가운데 서울에 기반을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근로청소년회관: “KCF”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5월 1일자로 청소년 사업부를 신설하고 지하철 신문판매사업으로 출발하였다. 198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기출하거나, 지방에서 상경했거나, 부랑아들이거나, 신문, 껌, 우산 등을 팔던 아이들에게 조직적으로 지원해줄 기관을 모색하던 서울시에서 한국어린이재단을 전문기관으로 선택하였고, 재단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서울시의 수락에 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사업기관으로 출발한 초창기에는 문제성 있는 아이들 또는 준비행화된 아이들이 많았다. 이는 그 시절의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출발당시의 기본

정신은 문제성 많은 아이들에게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신념이었다.

현재에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180평의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상담실, 기숙사, 강당, 독서실 등을 마련하고 이용대상을 빈곤 무직청소년 또는 도시의 저소득 근로청소년과 아동 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원한 불우청소년을 1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근청”에서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코저 하는 청소년들에게 1981년 1월 부터 시작한 지하철 신문판매원 취업을 통해 자립 지도하며 생활관 제공으로 자립 기금 마련을 돕고 있다. 이곳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개별지도와 집단 지도 인성개발훈련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81년 1월 부터 1992년 8월 까지 8천여건에 달하는 청소년의 상담지도와 3천여명의 불우청소년들이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을 통해 자립, 배출되었다. 현재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의 신문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독서실 등의 부대시설을 보완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기구와 조직은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어린이재단을 상위로 하고, 관장 이하에 지도 및 전문위원회,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그림 1〉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조직

회를 두고 있다. 판장 아래에 직속의 사무과를 두고 신문판매사업부와 청소년복지부를 거느리고 있다. 주력활동인 신문판매사업을 위해서 판매지도과와 시설관리과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의 측면에서는 생활지도 및 청소년 상담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IV. 근로청소년과 복지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활동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활동을 분석하면 이 기관의 운영, 조직,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서근청”의 활동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파는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파악해 본다. 여기서 보고하는 심층분석은 이 기관의 직원과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번의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에 기초하였다.

신문판매와 자립 : 서울근로청소년회관과 그 성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팔아서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사실 서울에서 신문을 팔거나 살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이 있지만 지하철 내부는 그 곳의 내부적 특징 때문에 신문을 팔기에 적절한 곳이다. 고객의 입장에서조차 지하철은 신문

포함해서 무엇인가를 읽기에 좋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서근청”에 소속된 근로청소년들의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의 정해진 시간 안에 신문을 팔아서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 기관의 신문판매팀은 두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아침신문을 파는 조간팀이고 다른 하나는 오후신문을 파는 석간팀이다. 조간팀은 대개 새벽 4시에 그들의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지하철 역으로 간다.⁴⁾ 대개 청소년들이 성인들 보다 잠을 많이 자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침 일찍 일어난 이들은 항상 잠이 부족하고 그래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평균 200~300부의 신문을 파는데 판매부수도 사실은 그 날의⁵⁾ 특징과 신문을 파는 근로청소년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난다.⁶⁾ 신문판매가격의 35%는 그들의 몫이지만 14%는 “서근청”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부문은 신문사에서 신문을 산 원가에 속한다. 이 기관의 수입이 늘어감에 따라 1988년 이후에는 이들이 그들의 수입의 일부를 헌납하는 양도 늘고 그 대상기관도 안정되고 있다.⁶⁾ “서근청”의 직원이나 근로청소년들은 그들의 노력이 다른 불우한 이웃을 도운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 기관의 근로청소년들은 대개 새벽 5시 20

4) 이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모이는 지하철역은 충정로역이다. 충정로역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붐비고 주요 신문사와도 가까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5) 이곳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곳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수입은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60만원으로 다양하다. 설문에 응답한 66명의 근로청소년들의 평균수입은 65만원이다. 수입이 차이가 나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수입의 오전반이나 고수입의 오후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6) “서근청”에서 청소년 각자의 수입, 인건비, 그리고 부대비용을 빼고서 다른 기관에 수입의 일부를 헌납한 경우는 이 기관이 설립된 198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헌납의 양은 첫째 9백2십만원에서 1992년의 1억6천7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헌납대상도 처음에는 여러기관에 분산해서 헌납했으나 1989년 이래로는 한국어린이재단에 일괄 헌납해서 이곳에서 필요한 기관에 분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986-1988 기간에는 자체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적립하였다.

분 경에 신문판매를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신문을 배당받아서 신문을 팔 전동차에 오르는 순서를 정한 후에 각각 신문팔기를 시작한다. 지하철에 오르는 순서는 대개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하는데 몇몇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⁷⁾ 대개 2번째나 3번째로 보내 편리를 봐준다. 그러나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쯤에 지하철에 너무 사람이 많게 되면 그들은 신문파는 것을 일시 중단한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러쉬아워에 달리는 사람들이 꼭 찬 지하철을 ‘울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 서울의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전반 근로청소년들은 대개 오후가 막 시작되는 12시 30분 경에 그들의 하루활동을 마감한다. 사실 이 시간은 대개 석간 신문의 초판이 나오는 때이다. 아침반은 1시경에 점심식사를 하고 이시간 이후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처지와 계획에 따라 시간을 활용한다. 어떤 청소년들은 단순히 회관으로 돌아가 모자라는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다른 청소년들은 시험을 준비하거나 여러가지 종류의 기술을 배우고 있다. 요즈음에 인기가 있는 기술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다.

오후팀과 비교해 볼 때 오전팀은 일하는 시간도 적고 그래서 수입도 적다. 돈벌기와 저축의 측면에서는 오전팀이 불리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수입이 적은 약점이 있는 반면 자유시간이 많아 자신의 미래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다. 이

점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전반 청소년들의 평균나이는 오후반과 비교해 볼 때 적은 편이다. 자연히 오전팀의 청소년들의 이직률이 오후반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많은 오전반 청소년들이 이 기관을 자신의 앞으로의 경력준비를 위한 도약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이 기관을 떠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이 축적되었을 때이거나 진학시험에 통과했거나, 다른 직장을 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이다.

오후팀의 성원들은 오전팀과 비교해서 그 구성원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이 많으며 그래서 수입도 많다. 오후팀은 낮 12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밤 11시경에 일을 마친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5년 이상이나 이곳에서 신문을 팔아온 거의 직업적 신문팔이들이다. 많은 경우 이들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그들의 부모를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전팀이 미래의 직업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는 반면 오후팀은 돈벌이 자체에 더 강조를 두는 편이다. 다시 말해서 신문팔이가 몇몇 오후팀 멤버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책임지는 사실상의 직업인 경우가 많다. 오전팀의 멤버들과는 다르게 오후팀의 성원들의 꿈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을 경영하는 것이다.⁸⁾

7)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은 남자들만의 숙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여자근로청소년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거처가 없다. 비록 함께 기숙을 할 수는 없어도 몇몇 여성청소년들이 신문판매에는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여성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거처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남자근로청소년들과 합류한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복지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8) 설문에 응답한 67명의 근로청소년들의 미래의 희망을 조사한 결과 37%에 달하는 25명이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싶다고 반응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준다. 그 다음은 공부를 계속하거나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고 한다든지, 심지어 음악가나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한 경우도 많았다.

문화방송에서 2년 전에 방송된 이 기관을 소개하는 프로의 서론적 코멘트가 이 기관의 젊은이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신문을 파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계없이 자신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감과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다.”

매년 이 기관은 직원들과 청소년들을 이끌 모토를 선택하는데 지난해 이곳의 모토는 자립기금 마련을 위한 저축, 각각의 청소년들의 상황에 적절한 수준 높은 상담과 생활지도, 그리고 신뢰성 있고 건강하며 민주적인 시민의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관의 모체가 되는 한국어린이재단의 총재가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에도 이 기관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내일을 사랑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기존 사회구조나 시설이 모두 다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 또한 재단총재의 당부에 잘 대응하고 있다.

“이 곳의 모든 근로청소년들은 한국어린이재단과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여러가지 도움에 감사하고 있다. 우리들은 친절과 봉사의 정신,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항상 유지할 것이며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종류의 역경을 극복하고 자립정신을 배양할 것입니다.”

사실 이 기관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경제적 자립에서 나오는 자립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곳의 관장은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이 기관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모든 어린이들은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그 기관을 떠나야 한다. 비록 아동복지시설을 떠나는 18세의 청소년들이 40~50만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지만 이 돈은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다(정길홍, 1991). 돈을 제외하고도 복지시설을 떠난 청소년들이 기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일차적인 의의는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서 아직 안정된 처처가 없는 청소년들을 도우는 것이다. 이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종류의 청소년들은 보통 자신의 집이 가난하거나 또 집이 좁아서 집에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기가 불편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이 범주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 이러한 범주의 청소년들을 도우는 데에도 “서근청”의 역할이 크다. 관장이 밝힌 이 기관의 사회복지적인 의미는 1) 청소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도우는 것, 2) 그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도우는 것, 4)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들의 장래의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서근청”이 가지는 또 다른 역할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인 비행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동복지시설을 떠난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서근청”이 용답동에서 81년에 500만원의 2개짜리 방으로 시작할 당시만 해도 열악한 환경이었다. 아동의 질은 천태만상이었고 특히 전과자나 고아원 출신자, 부랑아, 가출청소년, 싸움질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다. 그 이후 중립동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생활의 여건은 조금 나아졌으나 여전히 아이들은 거칠었다. 유흥가, 공장 등이 있

있고 기숙사는 안정되지 않아서 싸움이나 고성방가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받았다. 이때에는 아이들이 언제나 술을 먹고 기숙사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 이후 합정동으로 이사를 온 이후에는 환경의 여건이 아주 개선되었다. “서근청”이 개관한 이래 이곳에서 근무한 한 직원에 따르면 개관초기였던 10년 전에만 해도 그는 1주일에 꼭 한 두 번은 경찰서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비행적인 분위기를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기관의 문화가 비행적인 패배주의에서 긍정적인 자립정신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몇몇 청소년들은 그들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재학중인 한 근로청소년은 신문을 파는 자신을 보는 일반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그만 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기관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빈곤하거나 여러가지로 불리한 청소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자리, 즉 신문을 파는 일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이곳은 입퇴소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 누구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곳에 와서 그가 노력한 만큼의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기관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수입을 올릴 뿐만 아니라 그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를 다른 기관을 돕기 위하여 헌납한다는 사실이다. 환경이 불리한 청소년들에게 이곳은 돈을 버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독립된 삶과 자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 근로청소년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이곳에서 삶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학교

에서나 가정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값진 진리이다.” 또 다른 근로청소년은 말하기를, “내가 존경하고 감탄하는 것은 이 곳에서 5년 이상이나 계속 일하고 있는 여러 선배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철학이다.”

김이라는 성을 가진 20세의 한 젊은이는 3년 전에 서울에 왔다. 사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근청”에 소속된 청소년의 반 이상이 지방 출신이며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들은 아직도 시골에 계속 살고 있다. 김군의 양친은 모두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곳 저곳을 오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그가 이곳에 온 이후로 그는 그의 삶과 생각이 많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느낀다. 그는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계획은 일단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그가 전문대학에 진학하려는 생각을 가진 동기는 단순하다. 그가 신문을 팔면서 지하철에서 만난 대학생들이 부러웠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소년의 사례도 이곳 청소년의 삶의 모습을 비교적 잘 나타내 준다. 그는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지만 그는 최근 가정불화 등에 못견뎌서 가출하였다. 이 곳에 오기 전에는 그의 생활은 불안하고 불확실하였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한 그는 요즘은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원하는 것도 야간 고등학교를 마치고 야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그가 가지는 최종 목표는 대학을 졸업해서 그가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이곳에 있는 청소년 모두가 공부를 계속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신문을 팔고 저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도 우리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교육적 성취가 직업을 구하는 데 뿐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의 이곳의 상황은 몇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서로 일을 시켜달라고 회관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사회전반에 번진 3D기피현상과 유흥가의 급속한 증대, 인플레이에 의한 실수입의 감소, 기타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홍청망청함으로써 인생의 심각한 목표가 사라진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때문에 일을 자원하는 청소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한 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인내가 부족하고 갈등이 많아 개인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이 줄을 잇는 다는것이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요즈음에는 방학 중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한 직원은 증언하고 있다.

면접에서 느낀 것 가운데 특이한 것은 예상과는 다르게 이곳의 청소년들이 기존의 사회구조나 우리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그렇게 비판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이다. 차라리 그들은 우리사회와 그들의 미래를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이 그들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경우도 없지 않다. 비록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가 이 기관이 강조하는 주요 메시지가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 그 자체가 이들의 불행에 대한 감각을 완화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 곳에서 함께 생활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을지라도 서로에 대해 대체로 강한 응집력과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다. 물론 그들 사이에 내밀한 경쟁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이야기 하는데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단합을 과시하고 자신들끼리 회식을 하기도 한다. 이 기관이 가진 음식의 질이나 넓지 못한 침실, 기타 여러가지 사소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체로 “서근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그들은 이곳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그들의 도움에 대해 아주 고마워 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은 이곳의 직원과 근로청소년들의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 기관의 성공에 기여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이 기관이 민간복지시설로서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 기관이 근로청소년에 대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또 잠잘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곳의 가장 커다란 강점으로 꼽힐 수 있다. 특히 서울 시내의 비싼 주거비와 음식비를 고려한다면, 그들이 생활비를 벌고 저축하는데 있어 숙식비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서근청”이 제공하는 이 두가지 혜택이 여러가지로 불리한 근로청소년들의 자립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된다.

둘째, 무료 숙식비에 더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미래에 대해 계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이곳의 작업구조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간 사용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곳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이곳 생활의 성패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몇몇 근로청소년들은 이 기관자체에서 근무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몇몇 근로청소

년들은 신문팔이가 끝나면 단순히 잠을 자면서 시간을 때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구조나 운영방식이 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저축하도록 청소년들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 기관의 가장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유지해오고, 직원이나 청소년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전통 하나는 근로청소년들이 일을 마치고 오면 그날의 수입을 거의 자발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저축을 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에 임하는 태도가 이 기관의 정신적인 기반이다. 이 기관이 운영되는 힘은 협동의 정신, 일본배의 조정, 성취동기, 자신감, 그리고 자립의 의지에서 나온다. 이러한 종류의 정신적인 강조는 제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하나의 기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규범이나 규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적 덕목은 집단생활을 부드럽게 하고 협동적으로 만드는 것들이다. 이 곳의 직원들과 몇몇 고참 근로청소년들이 직접, 간접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 *can do spirit*'을 가르치고 있다.

다섯째, 또 다른 의미는 이 기관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과 역할이다. 이 기관은 많은 젊은이가 민주적으로 훈련된 시민으로서 성장되도록 키운다. 이 곳에서 근로청소년들은 그들이 학교나 가정에서는 배울 수도 없는 경험을 하고 배운다.

여섯째,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이곳의 가장 커다란 강점 가운데 하나이다. 관장과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직원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 기관에서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와 회원관리는 이곳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청소년비행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장점에 가려있는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기관이 가진 사업거리의 부족함이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실 신문을 파는 것이 수익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확장하는 것이 이곳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로 문화공간이 좁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육체를 단련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오락실이나 활동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기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는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연구전략 때문에 이곳의 장점에 비해 단점이나 어두운 면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곳의 단점이나 문제점은 더욱 긴 연구기간과 연구대상과의 친밀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V. 논의 및 결론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 요구와 필요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사업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발성과 자율성을 민간복지의 강점이라 한다면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사례는 고수익 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민간기관의

장점과 창의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다. 특히 도시근로청소년이나 빈민청소년,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에서 최소하는 청소년들은 공공복지가 떠 맡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민간복지 기관이 탄력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이 가지는 또 다른 의의는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특징인 직접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일시적인 직업과 돌벌이의 알선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대상청소년의 자립을 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의 직접적인 복지혜택의 대상은 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군의 청소년들에게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보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이론에 정확히 대비해 볼 수는 없지만 공공대행과는 거리가 있고 평행봉이론의 아이디어와 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하나의 복지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이론의 적합성을 논의하기는 많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축적되면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이론적 분석들이 정립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직에 의한 청소년복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한국어린이재단의 서울근로청소년회관을 분석하였다. 이 기관의 주요활동과 조직적 특징 등이 분석되었으며 전형적인 활동들이 질적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되었다. “서근청”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고,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저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적 사회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근로청소년들이다. “서근청”과 같은 복지기관은 한국에서는 흔치 않는 민간복지기관인데, 이곳의 운영시스템이나 근로청소년을 도우는 방식이 민간복지기관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기관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제공하기 보다는 복지대상clients의 참여를 최대한 장려하면서 이들의 불리함을 제도적으로 보충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복지조직에게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민간기관의 융통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비록 정부도 그 나름의 정책적 고려와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복지와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의 관심과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공적인 국가조직과 비교해 볼 때 민간조직의 강점은 정부조직은 감당할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복지영역을 탄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근로청소년회관과 이곳의 활동이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가지는 의의는 이 기관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변방에 있는 소수의 근로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준다는 사실이다. 이 짧은 글에서는 청소년복지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민간조직의 한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맥락에서 청소년복지의 주요 이슈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떤 쪽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만두(1987),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겨울호.
- 남세진(1987),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참여”, pp. 838~49 한국의 사회복지 현재와 미래. 서울: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 이용교(1992), “청소년복지”, pp. 81~100 한국 사회복지학의 평가.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정길홍(1991),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황창순, 박수경(1992), 청소년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보고.
- 한국어린이재단, CCF 38년사 1986.
- Anheier, Helmut K. and Wolfgang Seibel(ed.s.), 1990, *The Third Sectors : Co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Berlin: Walter de Gruyter.
- Clark, Helen, 1947, *Principles and Practice of Social Work*.
- Dimaggio, Paul J. and Helmut K. Anheier, 1990, “The Sociology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ecto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 137~59.
- Graycar, Adam and Adam Jamrozik, 1989. *How Austrians Live. Social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Artarmon : The MacMillan Company of Australia.
- Hwang, Chang-Soon, 1993, “Youth Employment and Youth Welfare : A Korean Case Study” Research Paper submitted to UNESCO Principal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 Kamerman, Sheila B., 1983, “The New Mixed Economy of Welfare : Public and Private”, *Social Work*. Vol. 28, No. 1.
- Offe, C., 1985, *Disorganized Capitalism*. Cambridge : MIT Press.
- Powell, Walter W.(ed.), 1987, *The Nonprofit Sector : A Research Handbook*.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Romanyshyn, John M., 1971, *Social Welfare*. Random House Kigsport.
- Webb, Sidney, “The Extention Ladder Theory”, *Survey*, XXXI, 23 : 703~7.